

창업리스크와 경영학과 대학생의 창업의지

김영락, 부교수, 세무회계정보과, 계명문화대학교

The Start-up Risk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Student

Kim Youngrok, Associate Professor, Dept. of Tax Accounting and Information, Keimyung College University, Rep. of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tart-up risks on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particular, the start-up risk considers the recent ongoing Covid_19 Pandemic along with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start-up risk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204 questionnaires collected for two months from October to November in 2020 were used to verify this relevance empirically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students' awareness of start-up risks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evance to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but the higher the level of negative perception of Covid_19 Pandemic, the lower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the other hand, additional analysis showed that the students with low self-efficacy majoring in business administration, it was found that negative perceptions of start-up risk had a negative effect on start-up willingness.

This study is timely and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empirically verified the effect of start-up risk on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at a time when negative perceptions of start-up risk increase and COVID_19 Pandemic make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start a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student.

Key Words : Start-up risk, Perception Level on Start-up risk, Covid_19 Pandemic, Entrepreneurial Intention.

* Received: Feb. 16th, 2022 Revised: Feb. 28th, 2022 Accepted: Mar. 21st, 2022

1. 서론

2012년 OECD 보고에 따르면 한국인의 창업선호도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¹⁾ 특히 대학생의 창업선호도는 더욱 낮아 2015년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간한 한·중·일 대학생 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진로(창업)선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대학생의 진로(창업)선택 비중은 40%인 반면 한국 대학생의 진로(창업)선택 비중은 6%, 그리고 일본 대학생의 진로(창업)선택 비중은 4% 수준에 그쳤다.²⁾

그러나 최근 대학의 교육현장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창업을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실제 창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취업에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구조 및 상황에 의해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의 취업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똑똑하고 주체적인 학생들이 회사를 차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 MZ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는 고교 때까지 억눌렀던 자율성을 펼치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 이들에게 창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출구가 되고 있다. 아울러 대학생의 창업은 나날이 치열해지는 취업난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안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기준 신생기업의 1년 생존률은 약 65%, 5년 생존률은 약 29%에 그치고 있다. 특히 개인 기업(자영업) 비율이 높은 ‘음식·숙박업’의 경우 1년 생존률은 약 59%, 5년 생존률은 약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선불리 창업을 하기에는 그 위험(risk)이 다소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20년 2월 이후 2022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Covid_19 Pandemic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는 창업 생태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창업을 시도하기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창업에 가장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영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리스크가 이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창업리스크는 경영학과 대학생이 인식하는 창업리

1) 2012년 OECD 자료에 따른 주요국의 창업선호도는 다음과 같다. 스웨덴 71%, 노르웨이 67%, 핀란드 61%, 칠레 57%, 중국 49%, 네덜란드 48%, 한국 11%.

2)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경우 ‘샤오미’같은 정보기술(IT) 창업 기업의 세계적 약진과 창업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창업 인식을 북돋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중창공간(衆創空間)’을 꼽았다. 칭화대·베이징대 등 40여개 대학이 있는 베이징 중관촌에선 유학생창업단지·과학기술원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한 창업 생태계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2014년 핀란드 창업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에코키트 역시 청년 창업가 웨이칭천 중창공간을 적극 활용해 창업한 성공 사례로 꼽았다.

스크 인식수준과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 수준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경영학과 대학생의 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은 창업의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Covid_19 Pandemic에 대한 인식수준은 경영학과 대학생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분석에서는 경영학 전공 대학생 중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의 경우 창업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설계를 제시하고,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공헌점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2.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한국은 2018년 기준 자영업 비중 25.1%로 38개 OECD 회원국 중 공동 7위로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이처럼 자영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포화도가 높고 동종 업종 내에서 경쟁이 치열하므로, 자영업의 폐업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³⁾ 최근 통계청의 ‘저널 통계연구’에 게재된 ‘개인 창업사업체 생존분석: 2010~2018 행정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에 의하면 개인 창업 사업체의 생존 기간 중위값(생존 기간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은 2.6년이였다. 창업자의 1년 생존률은 79%이지만, 3년(46%) 지나면 절반도 안 남고, 5년(31%) 지나면 3분의 1도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한 연령대별로 보면 35세 미만 청년층이 창업한 사업체의 생존 중위값은 2.3년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짧았다. 장년층(50~64세)이 3.1년으로 가장 길었고, 중년층(35~49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이 2.9년으로 같았다.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사업체의 생존기간 중위값은 4.3년으로, 가맹점이 아닐 때(2.5년)보다 1.8년이 더 길었다. 프랜차이즈가 본사의 경

3)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 자료에 의하면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창업 5년 차 폐업률이 81.1%로 나타났다. 이어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80.2%, 사업지원서비스업 75.6%, 도·소매업 74.6% 등이 높은 폐업률을 나타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 9개 업종의 5년 차 평균 폐업률은 71.5%로, 창업 후 1년이 지나면 34.7%가 폐업하고 2년이 지나면 49.3%가 폐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5년 차 폐업률은 프랑스·영국·이탈리아·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주요국의 평균(58.3%)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경영 교육 지원 등도 받기 때문이라고 논문은 분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과 금융·보험업이 1.9년으로 가장 짧았고, 음식점업(2년)도 생존률이 높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 창업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청년 창업의 폐업 위험이 높은 것을 보면, 기존 청년 창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 자영업의 폐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다만 이를 대학생으로 한정해 보면 대학생 창업의 경우 한층 더 치열해진 취업난에 따라 실제 창업선호도는 높지 않으나 비자발적인 창업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그에 따라 창업에 실패할 확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실패가 용인되지 않는 문화적 특수성이 있으며, 실제 한번 창업에 실패 시 경제적으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창업을 고려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있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창업리스크가 창업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창업리스크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대용·김재형(2016)은 창업실패관련 지각된 위협이 창업실패두려움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창업실패두려움은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류자영·박경애(2018)는 떡 전문점 창업위험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창업위험요인의 하위요인인 사업적 위험인식, 신체·안전적 위험인식, 시설적·안전적 위험인식, 사회위 치적 위험인식, 그리고 미래기회 상실적 위험인식 모두에서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침을 보고하였다. 김영희·양동우(2019)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창업실패두려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창업실패두려움은 독립변수로서 창업의지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이희승·정완규(2019)는 피아노 학원(교습소)의 창업 위 험인식이 창업의도 및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창업 위험인식 중 사회위 치적 위험이 창업의도 및 창업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창업리스크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창업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일반 창업자뿐만 아니라 경영학과 대학생 창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경영학과 대학생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취업 대신 모험 적인 창업을 선택함에 있어 창업리스크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 될 것이다.

2.2 연구기설 설정

인간은 심리적으로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성취

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존재한다. 대부분의 대학생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등을 선호하며 이를 위해 대학 4년에 더해 수년을 투자하고 노력한다. 반면, 일부 대학생의 경우 안정적인 삶보다는 도전하는 삶을 위해 창업에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초기 창업자들도 대부분 일정 수준의 초기 성공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하고자 한다. 물론 성공이 이들의 도전정신을 쇠락시켰다고 볼 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이는 인간의 생존의 본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창업을 꿈꿀 때 드라마틱한 성공과 함께 자연스레 암울한 실패도 함께 떠올리게 된다. 누구나 성공할 수 없으며 누군가는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기에 창업에 있어 실패의 암울한 그림자는 항상 우리 곁에 드리워져 있다. 이는 대학생의 창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가장 진취적인 세대라 할 수 있는 20대, 그 중에서도 가장 의욕적이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는 대학생의 경우 그 누구보다 자발적인 창업의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창업 관련 교과목을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경영학 전공 대학생은 그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창업의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역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존재한다. 실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격언처럼 창업에 대해 배울수록 그리고 창업 생태계의 냉엄한 현실을 파악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커져간다.

이처럼 창업에 있어 실패, 구체적으로 창업리스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업에 있어 창업리스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된 바 없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리스크가 이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특히 창업과 가장 관련있다고 볼 수 있는 경영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리스크가 이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경영학 전공 대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창업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가 이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대학생의 경우 사회 경험이 적거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인식하는 창업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실제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이들이 창업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자세(태도)에 달려 있을 것이다. 먼저, 경영학 전공 대학생이 창업리스크를 부정적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 정도로 인식한다면 이러한 창업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들의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사회 경험이 적거나 전무한 경영학 전공 대학생에 있어 창업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들의 창업활동을 저해한다면 창업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들의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2020년 초 국내에도 불어닥친 전세계적 재앙이라 할 수 있는 Covid_19 Pandemic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20년 10월 창업 및 폐업 통계에 의하면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새로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모두 14만5,201곳으로 이는 2019년보다 5천 개가 줄어 3.3% 감소하였다. Covid_19 Pandemic 초기 영향으로 부진했던 3~5월 사이의 창업이 6~7월 들어 반짝 증가세를 보이다가 8~9월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는 양상을 나타냈다. 반면,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폐업한 업체는 모두 10만8,117곳으로, 2019년보다 폐업하는 가게가 1만5,402곳이나 감소하였다. 실제 Covid_19 Pandemic 이후 초기 8개월간은 창업보다 폐업을 더 꺼린 것으로 나타났다.⁴⁾

폐업률도 눈에 띄게 감소하여 2020년 2월부터 9월 사이 영업한 업체 중 폐업한 비율은 6.5%로, 2020년보다 1% 감소하였다. 이는 Covid_19 Pandemic으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져 창업을 계획했던 예비창업자들이 주춤할 수 밖에 없고, 기존의 창업자들은 비싼 폐업비용을 감당하기보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면서 버텨나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초유의 Covid_19 Pandemic 사태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게 큰 위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Covid_19 Pandemic으로 인해 한층 더 어려워진 창업여건은 예비 경영학과 대학생 창업자에게도 일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만, Covid_19 Pandemic에도 불구하고 배달업 등 일부 비대면 관련 업종의 경우 오히려 호황을 구가하고 있기에 Covid_19 Pandemic에 대처하는 경영학과 대학생의 자세(태도)는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영학 전공 대학생이 Covid_19 Pandemic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 내지는 오히려 기회로 인식한다면 이러한 Covid_19 Pandemic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들의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사회 경험이 적거나 전무한 경영학 전공 대학생에 있어 Covid_19 Pandemic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의 창업활동을 저해한다면 Covid_19 Pandemic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들의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창업리스크는 경영학과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2020년 9월 말 기준 영업업체 전체 수는 156만3,887곳으로 2019년 9월(152만6,649개)에 비해 2.4%가 오히려 늘어났다.

3. 연구설계

3.1. 연구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샘플(sample)은 충청지역 4년제 대학교의 창업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영학 전공 대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자료(data)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지의 초안을 작성한 후 창업 관련 전문가(창업 전공 교수 등)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난 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 설문문항을 온라인 응답방식으로 배포하여 부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배포한 215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204부의 설문지를 최종 표본으로 채택하였다.

3.2. 변수의 측정

3.2.1. 연구모형

창업리스크(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 및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가 경영학과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창업의지} = \alpha_1 + \beta_1(\text{창업리스크 인식수준, Covid}_19 \text{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 \\ + \beta_2(\text{성별}) + \beta_3(\text{창업교육수강여부}) + \beta_4(\text{부모창업경험여부}) + \varepsilon$$

-종속변수 : 창업의지(창업의지 관련 6개 설문에 대해 Likert 5점척도로 측정)

-독립변수 : 창업리스크

(1) 창업리스크 인식수준(4개 설문에 대해 Likert 5점척도로 측정)

(2)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3개 설문에 대해 Likert 5점척도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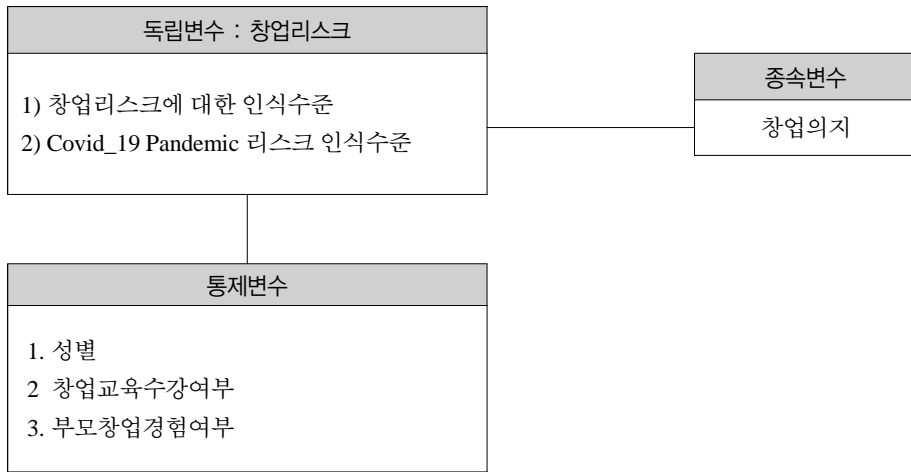
-통제변수 :

(1) 성별(남성이면 1, 여성이면 0인 더미변수[Dummy Variables])

(2) 창업교육수강여부(창업 관련 교과목을 수강했다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3) 부모창업경험유무(부모 창업경험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다음은 본 연구의 모형을 나타낸 [그림 1]이다.



<그림 1> 연구모형

3.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 창업의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창업의지는 권영국·윤혜현(2013), 이인숙 등(2013), 최용석 등(2016), 지상현(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① 나에게는 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② 나에게는 창업자가 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③ 나는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창업 관련 정보를 유심히 본다. ④ 나는 훌륭한 아이템이 생기면 언제든지 창업을 할 생각이 있다. ⑤ 나는 언젠가는 내 자신의 사업체를 소유하여 운영할 것이다. ⑥ 나는 다른 직무보다 창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등 총 5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Likert 5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 창업리스크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변수인 창업리스크의 대리변수는 다음 2가지이다. 첫째, 경영학과 대학생의 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이다. 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은 ① 나는 창업은 무모한 도전이라 생각한다. ② 창업에서 한번 실패하면 내 인생은 실패할 것이라 생각된다. ③ 창업은 내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④ 나는 창업으로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등 총 4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Likert 5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둘째, 경영학과 대학생의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이다.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은 ① Covid_19 Pandemic으로 인해 경제상황은 나빠질 것이다. ② Covid_19

Pandemic은 2021년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다. ③ 창업자는 Covid_19 Pandemic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등 총 3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Likert 5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모형의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통제변수에 포함된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은 설문응답자가 남자이면 1, 여자이면 0의 값을 갖는 성별 더미변수(dummy variables)이다.⁵⁾ 둘째, 창업교육수강여부는 설문응답자가 창업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문성식·전인오, 2017). 셋째, 부모창업경험여부는 설문응답자의 부모님이 창업경험이 있거나 현재 창업(사업) 중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4. 실증분석 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다음 <표 1>은 본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이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 포함된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으며, 요인들 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각회전방식(Varimax)을 적용하였다.

<표 1>에서 각 구성개념들의 적재 값이 모두 0.5이상이므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들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각 변수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Sexton and Bowman(1990), 장대성과 홍석기(2001), 권영국과 윤혜현(2013) 등은 성별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표 1>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결과

	창업의지		창업리스크			
			창업리스크 인식수준		Covid리스크 인식수준	
	요인 적재량	공통성	요인 적재량	공통성	요인 적재량	공통성
창업의지1	.854	.811				
창업의지2	.922	.881				
창업의지3	.852	.759				
창업의지4	.784	.645				
창업의지5	.891	.832				
창업의지6	.844	.735				
창업리스크1			.741	.698		
창업리스크2			.813	.711		
창업리스크3			.809	.778		
창업리스크4			.788	.689		
Covid리스크1					.969	.898
Covid리스크2					.802	.891
Covid리스크3					.843	.766
Eigen Value	6.112		2.867		6.258	
공통변량(%)	38.113		17.281		39.863	
누적공통변량(%)	36.483		52.732		34.621	
Cronbach's Alpha	.942		.840		.932	

4.2. 기술통계량

다음 <표 2>는 연구모형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다. 첫째, 종속변수인 창업의지는 0.019로 나타나, 창업의지는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인 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은 -0.006으로 나타나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Covid_19 Pandemic에 대한 인식수준은 0.021로 나타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 통제변수 결과로, 성별의 경우 0.559로 나타나 남성 응답자가 약 5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교육수강여부는 0.235로 나타나, 약 23.5%의 대학생이 창업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창업여부는 0.464로 나타나, 약 46.4%의 대학생의 부모님이 창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통계량의 경우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값들의 평균과 중위수 간의 차이가 표준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그리 크지 않아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기술통계량⁶⁾

	Mean	Median	Standard deviation	Min	Max
창업의지	0.022	0.045	0.971	-2.140	2.632
창업리스크 인식수준	-0.007	0.006	0.992	-2.263	3.141
Covid_19리스크 인식수준	-0.029	0.097	1.003	-1.941	1.762
성별	0.564	1.000	0.504	0.000	1.000
창업교육수강여부	0.249	0.000	0.428	0.000	1.000
부모창업경험여부	0.489	0.000	0.518	0.000	1.000

4.3. 상관관계 분석

다음 <표 3>은 주요 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이다. 첫째, 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과 창업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과 창업의지는 5% 유의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경영학과 대학생의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이 부정적일수록 창업의지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같은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그 결과해석에 있어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Pearson 상관관계 분석

	창업의지	창업리스크 인식수준	Covid리스크 인식수준	성별	창업교육 수강여부
창업리스크	0.002				
	0.446				
Covid리스크 인식수준	-0.112**	0.254*			
	0.042	0.067			
성별	0.383***	-0.044	-0.009		
	0.000	0.436	0.644		
창업교육 수강여부	0.296***	0.104	.236	.223**	
	0.000	0.134	0.054	0.001	
부모창업경험여부	0.167**	0.166	0.362	0.186	0.071
	0.023	0.114	0.109	0.054	0.076

주) *, **, *** 상관계수는 0.10, 0.05, 0.01 수준(양쪽) 유의함.

6) <표 2>의 기술통계량 값은 설문지의 5점 척도 원값이 아닌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한 회귀변수값을 제시하였다.

4.4. 가설검증 결과

다음 <표 4>는 가설의 검증결과로 다음과 같다. 검증결과, 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은 창업의지와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영학과 전공 대학생의 경우 창업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부 있더라도 이러한 인식이 이들의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창업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들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대학생의 진취성이 일부 작용한 결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은 통제변수 분석결과이다. 첫째, 성별(남성인 경우 1)은 창업의지와 1% 유의수준에서 매우 높은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경영학과 전공 대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창업교육수강여부(수강 시 1)는 창업의지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창업교육이 실제 효과적이거나 혹은 창업교육을 수강할 정도로 창업의 열의가 있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창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부모창업경험여부(부모창업 시 1)는 창업의지와 5%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가 창업한 경험이 경영학과 전공 대학생에게는 창업에 있어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표 5>는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과 창업의지 간의 관련성을 검증결과로 다음과 같다. 검증결과,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은 창업의지와 10% 유의수준에서 부(-)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영학과 대학생의 경우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수준이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

<표 4> 창업리스크 인식수준과 창업의지 검증결과

	종속변수 : 창업의지		
	Coef.	t	P
Intercept	-0.634	-5.632	0.000
창업리스크 인식수준	-0.014	-0.800	0.425
성별	0.616	5.137	0.000
창업교육수강여부	0.501	4.031	0.001
부모창업여부	0.285	2.299	0.023
F	14.263***		
Adjusted R ²	0.212		

주) *, **, *** 상관계수는 0.10, 0.05, 0.01 수준(양쪽) 유의함.

<표 5>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과 창업의지 검증결과

	종속변수 : 창업의지		
	Coef.	t	P
Intercept	-0.743	-3.967	0.000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	-0.055	-1.726	0.086
성별	0.665	4.946	0.000
창업교육수강여부	0.524	4.031	0.000
부모창업여부	0.378	2.597	0.010
F	15.684		
Adjusted R ²	0.227		

주) *, **, *** 상관계수는 0.10, 0.05, 0.01 수준(양쪽) 유의함.

다음은 통제변수 분석결과로 첫째, 성별(남성인 경우 1)은 창업의지와 1% 유의수준에서 매우 높은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둘째, 창업교육수강여부(수강 시 1)는 창업의지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셋째, 부모창업경험여부(부모창업 시 1)는 창업의지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4.5. 추가분석

한편, <표 2>의 기술통계량과 가설검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의 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아직 창업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정보 부족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큰 시점에서 이뤄진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음의 무기로 무장한 대학생의 경우 자기 자신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 강해 창업리스크를 인식하더라도 이를 과소평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대학생의 경우 창업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수준에 따라 창업의지에 큰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을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2분위 한 후, 연구가설을 재검증하였다.7)

7) 자기효능감(self efficacy)은 반두라(A. Bandura, 1977)가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기대한 만큼 얻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 또는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현성용 등, 2008). 자기효능감은 Bandura(1982)를 토대로 ①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② 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 ③ 나는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④ 나는

다음 <표 6>은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수준과 창업의지 간의 관련성을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각각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이다. 먼저, 모형(1)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수준과 창업의지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검증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수준이 이들의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형(2)는 자기효능감이 낮은 그룹을 대상으로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수준과 창업의지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검증결과, 자기효능감이 낮은 대학생의 경우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수준은 이들의 창업의지에 5% 유의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수준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역량에 대한 확신이 강한 대학생의 경우 현재 창업에 있어 Covid_19 Pandemic 리스크를 크게 고려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대학생의 경우 Covid_19 Pandemic 리스크가 이들의 창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8)

<표 6>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과 창업의지 검증결과 -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종속변수 : 창업의지					
	모형(1) : 자기효능감 높은 그룹			모형(2) : 자기효능감 낮은 그룹		
	Coef.	t	P	Coef.	t	P
Intercept	-0.734	-4.584	0.000	-0.332	-1.807	0.073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	-0.016	-0.390	0.697	-0.247	-2.299	0.023
성별	0.871	4.744	0.000	0.358	1.545	0.124
창업교육수강여부	0.637	2.597	0.010	0.521	2.387	0.018
부모창업여부	0.322	1.592	0.113	0.326	1.738	0.084
F	11.487***			5.376***		
Adjusted R2	.278			.154		

주) *, **, *** 상관계수는 0.10, 0.05, 0.01 수준(양쪽) 유의함.

내 자신의 능력에 만족한다. ⑤ 나는 타인과의 경쟁에 자신이 있다. ⑥ 나는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으며, 인생에서 성공하리라는 자신감이 있다 등 총 6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Likert 5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8) 한편,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창업리스크 인식수준과 창업의지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그 결과는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경영학과 대학생을 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이 이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과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이 이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경기·충남지역 4년제 대학교의 경영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204부의 설문지를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학과 대학생의 창업리스크는 이들의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의 경우 창업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거나 혹은 창업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더라도 본인의 역량과 노력 등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인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경영학과 대학생의 Covid_19 Pandemic 리스크 인식수준은 이들의 창업의지에 10% 유의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학과 대학생의 경우 Covid_19 Pandemic 리스크를 창업에 있어 위협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추가분석에서는 자기효능감에 따라 대학생의 Covid_19 Pandemic 리스크와 창업의지 간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은 Covid_19 Pandemic 리스크와 창업의지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으나 자기효능감이 낮은 대학생의 경우 Covid_19 Pandemic 리스크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ovid_19 Pandemic 리스크와 창업의지 간의 관련성은 자기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학과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지 않은 창업리스크를 고려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대학생 창업의지 관련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으며 관련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Covid_19 Pandemic이 경영학과 대학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시의적절하며 유용성 높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권영국·윤혜현(2013). 외식관련전공 대학생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리학회지. 19. 193
- [2] 김영희·양동우(2019).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창업실패 두려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41(4). 65-86.
- [3] 류자영·박경애(2018). 떡 전문점 창업위험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4(4). 183-196.
- [4] 문성식·전인오(2017). 소셜 미디어 상호작용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물류학회지*. 27(5). 135-147.
- [5] 박우영·이병관(2020). 체육전공 대학생의 창업태도와 취업스트레스, 창업의지와 의 구조적 관계. *관광레저연구*. 32(2). 397-412.
- [6] 배소리(2019). 소상공인 업종별 개업 및 폐업의 영향요인 분석 : 서울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저임금 도입 전후 비교.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7] 손상규(2020). 대기업 직장인의 기업가정신과 스트레스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8] 이인숙·김외순·나영아(2013). 청년사업가를 위한 성장요인이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리·외식전공 대학생 중심으로. 한국조리학회지. 19(4). 25-39.
- [9] 이희승·정완규(2019). 피아노 학원(교습소)의 창업 위험인식이 창업의도 및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음악교수법연구*. 20(2). 195-215.
- [10] 임성희·김진욱(2021). 개인 창업사업체 생존분석: 2010~2018 행정데이터를 중심으로. *통계연구*. 26(2). 1-30.
- [11] 장수진(2019). 시니어의 기술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포함하여.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 [12] 장대성·홍석기(2001). 한국 대학생의 창업교육효과에 관한 성별 비교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7. 105-124.
- [13] 정대용·김재형(2016). 창업실패관련 지각된 위협이 창업실패두려움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1(4). 571-590.
- [14] 최용석·이재은·강지원·김선구·한가록(2016).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학습성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5). 15-27.
- [15] 현성용·한영숙·이종구·조현철(2007). 학습기술과 학습동기 및 자기효능감과 학업

성취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4(2). 153-172.

- [16]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y Review*. 84(2). 191-215.
- [17]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y*. 37(2). 122-147.
- [18] Sexton, D. L. and N. Bowman-Upton(1990). Female and male Entrepreneurship: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ir Role in Gender-related Discrimin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1). 29-36.

About the Authors

Kim Youngrok, is working as Associate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Tax Accounting and Information, Keimyung College University. He is interesting in taxation and accounting on current research topic.

E-mail address : kimyr@kmcu.ac.kr